

#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

이승창\*  
정강옥\*\*  
황진영\*\*\*  
임응순\*\*\*\*

\*\*\*\*\*

본 연구는 한국 유통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유통산업은 GDP에서 8%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며 최대의 고용처로 전체 취업자수에서 15%대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중은 유사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를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유통산업을 도소매업으로 파악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유통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산업간 연쇄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산업의 산출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경제내 타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유통산업이 자체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타산업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로 구분한 총효과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유통산업은 높은 생산유발효과, 높은 취업유발효과,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통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 및 보관 부문 산업에 높은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파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로 유통산업의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1보다 크고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는 1미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반부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한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유통산업, 도소매업 현황, 산업파급효과, 투입산출분석, 외생화

\*\*\*\*\*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leesc@kau.ac.kr)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교신저자, gojung@hnu.kr)  
\*\*\*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jyh17@hnu.kr)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연구소 연구교수(bristgirl@gmail.com)

## I. 서론

경제가 선진화되면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에 선진국들 대부분에서 서비스산업이 국가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도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국가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중에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영태, 강기우 2007; 한국은행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산업이 국민경제, 생산, 고용,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업연관분석이 널리 이용된다(한국은행 2007). 국내에서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특정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물류, 광고, 방송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유승훈, 임용순, 구세주 2008; 최영운, 하현구 2008). 이에 대비해 유통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에 유통산업에 관련된 통계는 38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조사, 담당하는 조직이 통계청,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과 같은 여러 기관, 협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조직마다 목적에 따라 표본구성, 조사방법이 상이하다(정상익, 이은철, 박주영 2008). 이에 따라 유통관련 통계자료의 일관성이 낮아 지표간의 관계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동일 지표

인 경우에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산업 현황에 관한 통계 및 분석에 신뢰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유통관련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통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유발효과로 분석한 실증연구와 산업간 관계를 규명하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유통산업 최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고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 분석으로 규명해보았다.

## II. 한국의 유통산업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의 이해

### 1. 한국의 유통산업 현황

유통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유통산업을 구성하는 업종의 범위, 내용 또한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다(안광호, 한상린 2006).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유통산업을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박

민규 2007). 한편 산업연구원에서는 유통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시킴으로써 장소 및 시간의 효율성을 창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유통산업의 범위를 상적유통, 물적유통으로 구성하여 물류 활동까지 포함시킨 포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김숙경 2009).

국내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통계를 조사, 작성,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유통산업을 도매업, 소매업으로 구성된 산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업분류 방법인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토대로 구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y Code, 이하 KSIC)로 하여 이에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업종이 유통산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소매업을 유통산업으로 하여 접근하였다. 도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비자, 기업 또는 다른 도소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으로서, 상품의 조합·분류·재포장·상표 부착·배달 및 설치 서비스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김영태, 강기우 2007). KSIC에서는 도소매업을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유통산업에 관한 같은 통계 중에는 표본, 내용이 달라 상이한 수치를 보이는 것도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유통산업의 규모로 자주 인용되는 도소매업 산출액이다.

통계청에서는 산출액을 판매액으로 파악

하는데 이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는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규모를 판매액으로 파악한다. 특히 사항으로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에는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활동까지 도소매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산출액에서 제조회사의 직접 판매활동에 의한 것은 제외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출액(일명 생산액)은 GDP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크기를 나타내며 판매액에서 구입원가를 차감한 금액(일명 마진액)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에서는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업회계상 분리되지 않는 판매활동은 도소매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해당 제조업으로 포함시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전제품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해당 제조업으로 처리되지만 통계청에서는 도소매업 판매액으로 파악한다(김영태, 강기우 2007). 한국 유통산업 산출액 규모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에서 산출액으로 보는 한국 유통산업 전체의 판매액은 2000년에 370조원에서 2008년에 653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성장률 9.6%의 고성장을 했다는 것으로 매출액 규모가 8년만에 1.77배 성장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유통산업을 구성하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별 매출액 규모 추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유통산업의 판매액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업종은 도매업으로 2000년에 210조원에서 2008년에 400조원으로 연평균 11.3%의 가장 높은 성장

〈표 1〉 한국 유통산업의 판매액 및 세부 구성 규모 추이(단위: 조원)

구분	'00	'02	'03	'04	'06	'07	'08
도매업	210	250	251	262	315	353	400
소매업	116	140	128	131	149	197	217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	44	52	53	54	64	36	36
도소매업 전체	370	442	432	447	528	586	653

자료원: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소매업으로 2000년에 116조원에서 2008년에 217조원을 나타내 10.9%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는 2000년에 44조원에서 2008년에는 36조원을 기록하여 연평균 -2.3%의 역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2000년에서 2008년에 걸쳐 도매업, 소매업의 순으로 성장했지만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는 그 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도매업이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56.8%에서 2008년에 61.3%로 증가하였으며 소매업도 31.4%에서 33.2%로 증가한 반면에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는 11.9%에서 5.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파악하는 유통산업의 생산액은 GDP의 실질가격(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 기준으로 2000년에 83조원에서 2009년에는 106조원으로 2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 유통산업의 생산액이 매년 3.5%씩 증가하여 총 27.7%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산업의 생산액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는 낮아 GDP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9.6%에서 2009년에는 7.7%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3년에 생산액 증가율이 -2.2%로 역성장하였다는 것과 2007년 이후에 생산액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한국 유통산업의 부가가치는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에 그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가격 기준으로 한국 유통산업의 부가가치액은 2000년에 52조원에서 2009년에는 64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동안 23.1%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

〈표 2〉 한국 유통산업의 생산액 규모 추이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금액(조원)	83	88	93	91	93	96	99	106	106	106
성장률(%)	NA	6.0	5.7	-2.2	2.2	3.2	3.1	7.1	0.0	0.0
GDP비중(%)	9.6	9.4	9.0	8.5	8.3	8.3	8.3	8.3	8.5	7.7

자료원: ISTANS(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업통계분석시스템으로 원출처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업)를 참조하였으며 실질가격 기준임. NA는 Not Available을 나타내며 이하 동일.

〈표 3〉 한국 유통산업의 부가가치액 규모 추이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금액(조원)	52	54	56	55	56	57	60	63	64	64
증가율(%)	NA	3.8	3.7	-1.8	1.8	1.8	5.3	5.0	1.6	0.0

자료원: ISTANS(원출처: 한국은행의 국민계정)를 참조하였으며 실질가격 기준임.

가가치액 증가율 추이도 생산액 추이와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데, 2003년에 -1.8% 감소한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2009년에는 증가율이 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유통산업의 사업체수는 2008년 기준으로 860천개로 전체 사업체수인 3,265천개의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 835천개로 2000년에 비해 82천개 감소한 후 2002년에 899천개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유통산업 사업체수는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 828천개로 줄어들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다시 사업체수가 소폭 증가하다가 2008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 사업체수가 전체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까지는 등락하며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이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최근의 전체

및 유통 산업의 연도별 사업체수 자료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통산업의 구성 업종인 도매업, 소매업 그리고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의 사업체수가 연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증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매업 사업체수는 2001년의 감소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매업 사업체수는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소매업 중에서 재래매점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김영태, 강기우 2007; 한국은행 2010). 다음으로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는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안정적인 사업체수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유통산업 사업체수가 한국의 전체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주원인은 소매업체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 한국의 전체 및 유통산업 사업체수 추이(단위: 천개)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전체	3,013	3,047	3,132	3,188	3,190	3,205	3,144	3,263	3,265
유통업체	917	835	899	894	878	828	845	868	860
비중(%)	30.4	27.4	28.7	28.0	27.5	25.8	26.9	26.6	26.3

자료원: 통계청, 전국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및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5〉 한국 유통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추이(단위: 천개)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도매업	189	176	195	205	205	207	213	221	224
소매업	693	627	668	653	638	587	596	622	612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	33	32	35	35	34	33	34	22	22

자료원: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한국 유통산업의 종사자수 추이를 도소매업 취업자수로 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2008년의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이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제조업이 17.2%, 도소매업 15.6%로 나타나 유통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을 단일 업종으로 본다면 최상위

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으로 종사자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제조업은 2005년 18.4%에서 2008년 17.2%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은 2005년 46.5%에서 2008년 49.3%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통산업 취업자수는 2005년에 2,697천명에서 2008년에 2,999천명인 것으로 나타나 302천명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

〈표 6〉 한국의 주요 산업 및 유통산업의 취업자수 추이(단위: 천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농림어업	1,830	(10.4)	1,804	(9.3)	1,749	(9.3)	1,704	(8.9)
광업	17	(0.1)	17	(0.1)	17	(0.1)	18	(0.1)
제조업	3,236	(18.4)	3,275	(17.7)	3,333	(17.7)	3,316	(17.2)
소비재업종	912	(5.2)	898	(4.8)	897	(4.8)	887	(4.6)
기초소재업종	903	(5.1)	920	(5.1)	951	(5.1)	953	(4.9)
조립가공업종	1,421	(8.1)	1,457	(7.9)	1,485	(7.9)	1,476	(7.7)
전력·가스·수도	69	(0.4)	70	(0.4)	72	(0.4)	69	(0.4)
건설업	1,576	(9.0)	1,668	(9.0)	1,691	(9.0)	1,621	(8.4)
서비스업	10,873	(61.8)	11,921	(63.5)	11,921	(63.5)	12,470	(64.9)
<b>도·소매</b>	<b>2,697</b>	<b>(15.3)</b>	<b>2,882</b>	<b>(15.3)</b>	<b>2,882</b>	<b>(15.3)</b>	<b>2,999</b>	<b>(15.6)</b>
음식·숙박	1,398	(7.9)	1,495	(8.0)	1,495	(8.0)	1,566	(8.2)
운수·보관	956	(5.4)	991	(5.3)	991	(5.3)	998	(5.2)
통신·방송	152	(0.9)	161	(0.9)	161	(0.9)	163	(0.9)
금융·보험	550	(3.1)	602	(3.2)	602	(3.2)	630	(3.3)
부동산·사업서비스	1,541	(8.8)	1,852	(9.9)	1,852	(9.9)	2,007	(10.4)
공공행정·국방	700	(4.0)	725	(3.9)	725	(3.9)	741	(3.9)
교육·보건	1,850	(10.5)	2,132	(11.4)	2,132	(11.4)	2,248	(11.7)
사회·기타서비스	1,028	(5.8)	1,081	(5.8)	1,081	(5.8)	1,114	(5.8)
산업전체	17,602	(100)	18,784	(100)	18,784	(100)	19,207	(100)

자료원: 한국은행(2008, 2010), 산업연관표, 각 년도이며 ()는 %임.

해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15.3%에서 15.6%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유통산업 비교

한국에서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과의 유통산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유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 비중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별 GDP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미국, 영국의 순이며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 미국, 영국에 비해

최소 3%이상 낮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분석 4개국 모두에서 유통산업이 국가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유통산업이 국가의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국, 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국가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의 고용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 일본의 순으로 이들 국가는 거의 비슷하며 그 다음은 한국, 미국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유통산업의 고용이 한국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영국, 일본과 비슷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표 7>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GDP에서 유통산업의 비중 추이(단위: %)

연도	'05	'06	'07	'08	'09
한국	8.3	8.3	8.3	8.5	7.7
미국	12.3	12.2	12.1	11.7	11.5
영국	11.6	11.4	11.3	NA	NA
일본	13.8	13.4	13.3	NA	NA

자료원: 해당국의 유통산업 통계 데이터베이스(예: 통계청, 경제조사국 등)를 참조하여 획득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표 8>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유통산업 고용 비중 추이(단위: %)

연도	'05	'06	'07	'08	'09
한국	15.3	15.3	15.3	15.6	NA
미국	15.2	15.1	15.2	15.1	NA
영국	17.2	16.9	16.8	16.8	16.7
일본	NA	NA	17.3	16.7	16.8

자료원: 해당국의 유통산업 통계 데이터베이스(예: 통계청, 경제조사국 등)를 참조하여 획득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 3.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이해

여기서는 유통산업이 타산업에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에 대해 유통산업에 관련시켜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의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는데 이는 전문서적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Miller and Blair 1985; 강광하 2000).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으로도 불리는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강광하 2000; 한국은행 2007, 2010). 산업연관분석은 한 산업이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계량적인 수치로 파악하는 것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산업간 연쇄효과 등으로 계량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된다(강광하 2000). 또한 최종수요가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된다. 산업연관분석의 기본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행인 부문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나타내준다.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매 사이의 연관관계를 강조하는 일반균형모형

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Miller and Blair 1985).

산업연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가 있어야 한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중 국가경제 내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유승훈, 임응순, 구세주 2008). 한국에서 산업연관표 작성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며 5년 간격으로 작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연관표는 2010년 7월에 발표된 것으로 2008년도 산업연관표이다(한국은행 2010).

산업연관표는 그 구조에 따라 폐쇄모형과 개방모형으로 구분된다. 폐쇄모형(closed model)은 개방모형에서 외생부문으로 취급하는 부문을 내생부문 산업으로 간주하여 모든 부문을 생산부문으로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개방모형(open model)은 재화와 용역의 배분을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투입면에서는 생산을 위한 원재료 등의 중간투입, 노동 등의 원초적 투입으로 나누어 기록하며 최종수요부문과 원초적 투입부문을 개방부문(open sector)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주로 사용된다. 개방모형의 수요유도형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유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산업, 즉 유통산업의 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수표를 선택해야 한다. 유통산업 부문의 산출물은 특성상 수입할 수는 있지만 본 연구가 유통산업이 국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관심사이고 수입 부문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에 유통산업 부문이 경제에 유발시키는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으로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의 투입과 산출을 유통산업에 대한 중간수요, 최종수요와 상호연관시킬 수 있으므로, 유통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산업 부문의 산출이 경제내 다른 부분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로 나타난다. 즉,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는 자체의 산출효과뿐만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는 산업전체의 생산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통산업의 총산출, 총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로 구해진다. 산업연관분석의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산업간 연쇄효과를 유통산업에 연결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유발효과는 유통산업에서 생산이 1원만큼 증가하였을 때, 유통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도 유통산업에서 생산이 1원만큼 증가하였을 때, 유통산업을 제외한 타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산출액 증가가 타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유통산업을 외생화하여 유통산업의 산출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의 유발효과를 구한다. 취업유발효과는 유통산업에서의 생산이 1원만큼 증가

하였을 때, 유통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취업자수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종수요가 유발시키는 취업효과이다. 일반적으로 최종수요가 생산을 유발시키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시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취업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취업유발계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이는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나타내준다. 이 경우에 노동량은 취업자(피용자뿐 아니라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와 피용자의 두 가지로 나뉘어 파악되므로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유발계수와 피용자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계수로 구분되기도 한다. 취업(고용)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과정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생산유발효과처럼 유통산업 부문의 산출액이 미치는 취업(고용)유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을 외생화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통산업의 외생화를 통해 유통산업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인수(피용자수)가 구해지며 취업계수(고용계수)대각행렬에서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것이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이다.

다음으로 유통산업의 산업간 연쇄효과는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로 파악된다.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하는 경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유통산업의 산출물 공급도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 중간재 산업으로서 유통산업이 받는 영향의 정도가 감응도계수이다. 감응도계수로 파악되는 전방연쇄효과는 유통산업의 산출물을 다른 산업생산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유통산업의 영향력계수는 유통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어 타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영향력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후방연쇄효과는 유통산업의 산출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산출물을 유통산업에서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는 커지는 특성이 있다.

#### 4. 유통관련 분야의 산업연관분석 연구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주요산업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문헌 연구에서는 유통산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으로 물류산업, 광고산업, 방송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류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3개 연도의 산업연관분석을 다룬 최영윤, 하현구(2008)의 연구에서는 물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995년에 2.0874, 2000년에 2.3683, 2003년에 2.3379이며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파급효

과가 크며 부가가치유발효과도 이와 같은 순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운, 이대식(2008)은 물류산업의 산업연관구조와 성장기여요인의 변화추이를 산업연관표의 총산출분해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최근에 물류산업의 타산업과의 전후방연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박재운, 김호범(2010)은 물류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물류산업이 2007년을 기준으로 자체가 387,155명, 타산업이 604,754명으로 총 991,90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갖는 산업이라는 것을 분석결과로 제시했다. 김봉철(2002)은 3개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광고산업이 자체와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자체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인쇄·출판 및 복제, 통신 및 방송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인쇄·출판 및 복제 산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통신 및 방송 산업과 자체인 광고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광고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룬 유승훈, 임응순, 구세주(2002)의 연구에서 광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취업유발효과 모두가 통신 및 방송, 인쇄·출판 및 복제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승훈, 임응순, 정군오(2008)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방송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송산업의 1원 생산은 타산업의 생산을 0.7059원 만큼 유발하며, 타산업의 부가가치를 0.3970원 만

〈표 10〉 유통산업의 산업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단위: 원)

산업부문	생산유발	순위	부가가치	순위
1. 농림수산물	0.0058	18	0.0032	15
2. 광산품	0.0003	27	0.0002	27
3. 음식료품	0.0113	12	0.0048	13
4. 섬유·가죽제품	0.0062	17	0.0029	17
5. 목재 및 가죽제품	0.0174	10	0.0080	9
6. 인쇄·출판 및 복제	0.0040	21	0.0019	20
7. 석유 및 석탄제품	0.0408	6	0.0373	3
8. 화학제품	0.0202	9	0.0085	8
9. 비금속광물제품	0.0017	24	0.0008	24
10. 제1차 금속	0.0067	16	0.0027	18
11. 금속제품	0.0049	20	0.0017	21
12. 일반기계	0.0039	22	0.0014	23
13. 전기·전자기기	0.0092	13	0.0050	12
14. 정밀기기	0.0012	25	0.0005	26
15. 수송장비	0.0081	14	0.0031	16
16. 가구 및 기타제조	0.0036	23	0.0014	22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312	7	0.0209	6
18. 건설	0.0055	19	0.0025	19
19. 음식점 및 숙박	0.0246	8	0.0113	7
20. 운수 및 보관	0.0739	2	0.0471	2
21. 통신 및 방송	0.0670	3	0.0334	4
22. 금융 및 보험	0.0515	4	0.0305	5
2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329	1	0.0937	1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007	26	0.0005	25
25. 교육 및 보건	0.0078	15	0.0055	11
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129	11	0.0069	10
27. 기타	0.0466	5	0.0048	14
합계	0.5999		0.3405	

〈표 9〉 본 연구를 위해 재분류된 28부문 산업연관표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01	농림수산물	11	금속제품	21	통신 및 방송
02	광산품	12	일반기계	22	금융 및 보험
03	음식료품	13	전기 및 전자기기	2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4	섬유 및 가죽제품	14	정밀기기	24	공공행정 및 국방
05	목재 및 종이제품	15	수송장비	25	교육 및 보건
06	인쇄·출판 및 복제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	26	사회 및 개인서비스
07	석유 및 석탄제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27	기타
08	화학제품	18	건설	28	유통산업(도소매)
09	비금속광물제품	19	음식점 및 숙박		
10	제1차금속	20	운수 및 보관		

کم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 유통산업 산업연관 분석 자료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8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2008년도 산업연관표는 대분류(28, 이는 산업 부문의 수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 소분류(78), 중분류(168) 그리고 기본부문(403)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28부문 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였다. 여기서 유통산업을 도소매업으로 보고 산업연관표에 대한 통합을 실시하는데, 산업연관표상에서 도소매업은 대분류 19부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통산업을 외생화하여 해당 산업을 28부문으로 재편성하였다. <표 9>는 유통산업을 도소매업으로 정의하여 재분류한 산업연관표이다.

#### 2. 유통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요유도형모형을 이용하여 타산업에 대한 유통산업인 도소매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한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도소매업 1원 생산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

비스가 0.132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등의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는 도소매업에서 1원 생산 증가는 타산업에 0.5999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소매업에서 1원 생산 증가는 도소매업 자체에서 1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며, 타산업에서 0.5999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소매업에서 1원의 생산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1.5999원의 생산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0.0937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운수 및 보관, 석유 및 석탄제품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소매업의 1원 생산 증가는 타산업에서 0.3405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킨다. 아울러 도소매업의 총산출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해당산업 부가가치액/해당산업 산출액으로 계산)이 0.6392이므로 도소매업의 1원 생산증가로 인한 총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이들의 합친 0.9797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유통산업의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실제에서는 10억원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도소매업에서 10억원 생산으로 인해 타산업에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유발효과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1.065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운수 및 보관,

음식점 및 숙박 등의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도소매업에서 10억원 생산 증가는 타산업에서 3.6865명의 취업자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도소매업에서 10억원 생산에 대한 취업자수가 23.6889명이므로, 유통산업에서 10억원 생산에 따른 취업유발 인원수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27.3754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유발효과는 도소매업에서 10억원의 생산으로 인해 타산업에 유발되는 피용자수

<표 11> 유통산업의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단위: 명)

산업부문	취업유발	순위	고용유발	순위
1. 농림수산물	0.2064	5	0.0230	15
2. 광산물	0.0016	26	0.0015	26
3. 음식료품	0.0353	14	0.0257	14
4. 섬유·가죽제품	0.0454	11	0.0376	10
5. 목재 및 가죽제품	0.0722	9	0.0630	8
6. 인쇄·출판 및 복제	0.0428	12	0.0320	13
7. 석유 및 석탄제품	0.0050	24	0.0049	24
8. 화학제품	0.0380	13	0.0362	11
9. 비금속광물제품	0.0060	23	0.0056	23
10. 제1차 금속	0.0046	25	0.0044	25
11. 금속제품	0.0247	16	0.0211	17
12. 일반기계	0.0150	20	0.0140	20
13. 전기·전자기기	0.0226	18	0.0219	16
14. 정밀기기	0.0067	21	0.0063	21
15. 수송장비	0.0190	19	0.0186	19
16. 가구 및 기타제조	0.0245	17	0.0189	18
17. 전력가스 및 수도	0.0334	15	0.0334	12
18. 건설	0.0491	10	0.0473	9
19. 음식점 및 숙박	0.5309	3	0.2556	4
20. 운수 및 보관	0.6524	2	0.4465	2
21. 통신 및 방송	0.1949	7	0.1905	5
22. 금융 및 보험	0.2691	4	0.2668	3
2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650	1	0.9761	1
24. 공공행정 및 국방	0.0061	22	0.0061	22
25. 교육 및 보건	0.1134	8	0.1025	7
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0.2024	6	0.1226	6
27. 기타	0.0000	27	0.0000	27
합계	3.6865		2.7819	

를 의미한다. 유통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고용유발효과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0.976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도소매업에서 10억원 생산 증가는 타산업 전체에 2.7819명의 고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도소매업에서 10억원 생산에 대한 피용자수가 11.1886명이므로, 도소매업에서 10억원 생산에 따른 고용유발 인원수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13.9705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유통산업의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

유통산업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파악하기 위해 전후방연쇄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산업연관표를 구성하는 28개 산업전체에 대해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계산하여 서로 수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방연쇄효과는 감응도계수로 후방연쇄효과는 영향력계수로 구해진다. 감응도계수의 평균과 영향력계수의 평균은 정확하게 1이기 때문에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1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작으며, 1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크다고 한다. 28개 부문에 대해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의 분석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에서 유통산업이 포함된 산업별 감응도계수는 제1차 금속이 2.0836으로 가장 크며, 화학제품이 1.9081로 2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1.7245로 3위인 것으로 나

타났다. 유통산업의 감응도계수는 1.2528로 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유통산업이 산업성장에 전반적으로 자극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강광하 2000). 이를 통해 유통산업은 경기변동 민감형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통산업이 포함된 산업별 영향력계수는 기타 부문이 1.4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속제품이 1.2464, 일반기계가 1.2276으로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통산업의 영향력계수는 0.8430으로 22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유통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1보다 크고 후방연쇄효과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중간수요적 원시산업형’에 해당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2007)에서는 전후방연쇄효과의 크기에 따라 산업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유형은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으로 이를 ‘중간수요적 제조업형’, 2유형은 전방연쇄효과가 높고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으로 이를 ‘중간수요적 원시산업형’, 3유형은 후방연쇄효과가 높고 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으로 이를 ‘최종수요적 제조업형’, 4유형은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으로 이를 ‘최종수요적 원시산업형’이라고 한다. 이에 유통산업은 2유형에 해당하는 산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 유통산업의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

산업부문	감응도계수	순위	영향력계수	순위
1. 농림수산물	0.9641	14	0.9613	19
2. 광산품	0.5839	27	0.8874	20
3. 음식료품	1.1287	8	1.0752	9
4. 섬유·가죽제품	0.7778	19	1.0361	14
5. 목재 및 가죽제품	1.0768	10	1.0425	13
6. 인쇄·출판 및 복제	0.6530	22	1.0473	11
7. 석유 및 석탄제품	1.3612	4	0.5881	28
8. 화학제품	1.9081	2	1.0639	10
9. 비금속광물제품	0.7227	21	1.0093	15
10. 제1차 금속	2.0836	1	1.1624	5
11. 금속제품	0.9603	15	1.2464	2
12. 일반기계	0.8554	18	1.2276	3
13. 전기·전자기기	0.9783	13	0.9615	18
14. 정밀기기	0.5934	26	1.0845	7
15. 수송장비	0.8887	16	1.2038	4
16. 가구 및 기타제조	0.6265	23	1.1455	6
17. 전력가스 및 수도	1.1340	7	0.7827	27
18. 건설	0.5999	25	1.0805	8
19. 음식점 및 숙박	1.0481	11	1.0442	12
20. 운수 및 보관	1.1007	9	0.8051	25
21. 통신 및 방송	0.8813	17	0.9721	17
22. 금융 및 보험	1.2013	6	0.8849	21
2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7245	3	0.8006	26
24. 공공행정 및 국방	0.5289	28	0.8093	24
25. 교육 및 보건	0.6210	24	0.8097	23
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0.7383	20	0.9861	16
27. 기타	1.0068	12	1.4390	1
28. 유통산업	1.2528	5	0.8430	22

5. 산업연관분석의 결과 정리

도소매업으로 한 유통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에 관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이는 2008년 산업연관표상에 나타난 도소매업의 실제 산출액, 부가가치액, 취업자수, 피용자수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경제적으로 파급시킨 효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도소매업의 생산유발액은 직접적 유발액인 126조 6천억원(산업연관표상의 도소매업 산출액)과 간접적 유발액인 75조 9천억원(산업연관표상의 도소매업 산출액×타산업 생산유발계수(0.5999)로 계산된 값)을 합한 202조 5천억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유발액은 직접적 유발액인 80조 9천억원(산업연관표상의 도소매업 부가가치액)과 간접적 유발액인 27조 5천억원(산업연관표상의 도소매업 부가가치액×타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0.3405)

〈표 13〉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총효과
생산 유발효과	1원당 1.0000원 126조 6천억원	1원당 0.5999원 75조 9천억원	1원당 1.5999원 총 202조 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원당 0.6392원 80조 9천억원	1원당 0.3405원 27조 5천억원	1원당 0.9797원 총 108조 4천억원
취업 유발효과	10억원당 23,6889명 2,999,876명	10억원당 3,6865명 466,846명	10억원당 27,3754명 총 3,466,722명
고용 유발효과	10억원당 11,1886명 1,416,918명	10억원당 2,7819명 352,290명	10억원당 13,9705명 총 1,769,208명

로 계산된 값)을 합한 108조 4천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유발자수는 직접적 유발 2,999,876명(산업연관표상의 취업자수)과 간접적 유발 466,846명(산업연관표상의 도소매업 산출액×타산업 취업유발계수(3.6865)로 계산된 값)을 합친 총 3,466,7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자수는 직접적 유발자수인 1,416,918명(산업연관표상의 피용자수)과 간접적 유발자수인 352,290명(산업연관표상의 도소매업 산출액×타산업 고용유발계수(2.7819)으로 계산된 값)을 합친 총 1,769,208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통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도소매업을 유통산업으로 재분류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유통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산업간 연쇄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한 총효과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유통산업은 미국, 영국, 일본과 대비했을 때 고용 비중은 대동소이하지만 GDP에서의 비중은 3%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통산업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들 국가의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유통산업 생산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자국의 유통산업을 아시아 각국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하에 관련 주체들이 혁신을 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자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35% 정도가 방문 이유로 쇼핑을 들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성숙기에 있는 자국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통산업에 역동성을 불어 넣고 신사업창출, 신시장개척, 도시재생, 지방도시활성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Jetro 2009). 이와 같은 일본 유통산업의 최근 동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은 유통산업의 생산액을 증진시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유통산업은 타산업에 유발시키는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며 자체의 직접적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통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최대 고용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통산업이 취업 및 고용, 일자리 창출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영국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된 자국의 국가경제에서 금융산업과 함께 유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산업의 일자리 효과 때문이다. 한국도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통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통산업이 취업과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유통산업에 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적 결정에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통산업의 높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유통산업과 타산업과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고 활용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통산업은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모두가 크며 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 및 보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적 산업으로 다른 주요산업과 높은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 및 보관 부문 산업과의 시너지(synergy)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한국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향후 다양한 유통산업 정책 수립에 실증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예로 한국의 유통산업은 전반연쇄효과가 높으며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중간수요적 원시산업형'인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이는 유통산업이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타산업의 생산을 효과를 유발하는 정도는 낮은 특성이 있는 산업이라는 것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 방법론이 유통산업의 위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른 기법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유통산업의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효과만을 다루어서 타산업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통산업과 타산업 또는 유통산업과 주요 산업들을 대비시킨 산업연관분석이나

시계열분석이 이루어져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룬 한국 유통산업의 현황 파악과 유통산업의 외생화를 통한 투입산출분석이라는 체계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것은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측면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접수일: 2010. 11. 24

게재확정일: 2010. 12. 9

## 참고문헌

- 강광하(2000),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 김봉철(2002), “광고산업의 국민 경제적 기여도 분석,” *광고학연구*, 13(1), 25-53.
- 김숙경(2009), 유통산업 기초분석, 산업연구원.
- 김영태, 강기우(2007), 도소매업의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 박민규(2007), *유통산업발전법*, 우용출판사.
- 박재운, 김호범(2010), “한국 물류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변화추이 분석,” *물류학회지*, 20(1), 103-129.
- 박재운, 이대식(2008),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산업연관관계 및 성장기여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23, 177-203.
- 유승훈, 임응순, 구세주(2008), “광고산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 분석,” *광고연구*, 78(봄호), 189-214.
- 유승훈, 임응순, 정군오(2008),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방송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송과커뮤니케이션*, 9(1), 134-158.
- 안광호, 한상린(2006), *유통원론*, 학현사.
- 정상익, 이은철, 박주영(2008), “국내 유통산업 통계의 개선과 정책적 대안,” *유통연구*, 13(5), 1-14.
- 최영운, 하헌구(2008),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산업연관분석의 적용,” *로지스틱연구*, 16(2), 81-103.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 통계청, 전국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 한국은행(2010), 경남지역 유통산업의 구조변화가 고용 및 생산에 미친 영향, 경남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자료.
- 한국은행(2008, 2010), 산업연관표, 2008년, 2005년 책자 및 CD.
- Jetro(2009), *Attractive Sectors: Retail, Invest Japan*.
- Miller, R. E. and P. D.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 An Analysis on the National Economic Impact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Status and Input-output Analysis

Lee, Seung Chang<sup>\*</sup>  
Jung, Gang Ok<sup>\*\*</sup>  
Hwang, Jinyoung<sup>\*\*\*</sup>  
Lim, Eung-Soon<sup>\*\*\*\*</sup>

### Abstract

This paper has two objectives. One is to understand statu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Korea and compare it with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other is an attempt to apply input-output(I-O)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y for the year 2008. In the economy as a whole, the distribution industry represented about around 15 per cent employment and accounted for near 8 percent in GDP. The employment portion of the distribution in overall industry is almost same that of US, UK, and Japan, but shared portion in GDP is at least 3 per cent below these countries. Next, a static I-O framework is employed, focusing on two topics in its application. First, the impacts of the product or investment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on the product, value-added, and employment of other sectors are explored by using demand-driven model. Second, the national economic impact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Korea are looked into by using open model and inter-industry analysis.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distribution industry has a high production-inducing effect, more worker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 high forward and a low backward linkage effec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Distribution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status, Economic impact, Input-output analysis, Exogenous.

---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Aerospace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conomics, Hannam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Center for Economics and Statistics, Korea University